

# 전 광주시장도...는 뜨고 당한 보이스피싱

### 권양숙·김정숙 여사 사칭 4억5000만원 뜯은 40대女 구속 "목소리 비슷해 속아"...지역 유력인사 상대 사기 행각 덜미

광주-전남지역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전·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김정숙 여사를 사칭했으며, 전 광주시장은 재임 시절 4억 5000만원을 뜯겼다.

22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고품을 사취한 A(여·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 10여명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전 광주시장 B씨로

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음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를 받은 일부 유력 인사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경상도 사투리를 섞은 목소리로 응답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대다수 인사들은 A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응

대하지 않았으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전 광주시장 B씨만 속아 넘어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A씨의 딸 통장 등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겸·경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친분이 있었는데, 아내 권양숙 여사께서 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급히 돈을 보낸 것"이라면서 "(A씨와) 통화까지 했는데, (권 여사와)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 광주시장 B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시산하 기관 등에 2명을 채용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일부 인사에게 자신을 '김정숙 여사'로 사칭하고 접근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A씨의 범행은 전남의 유력인사 C

씨가 사기사건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C씨는 "문자를 받은 뒤 통화를 하자마자 사기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사건을 접수받은 전남경찰청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름으로 4억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판매원 생활을 해온 A씨는 아들과 딸을 둔 기혼녀로 검거 당시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수사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 등의 범행 거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음란물 대량유통 웹하드 업체 적발

### 전남경찰, 대표 등 3명 구속 헤비 업로더 등 18명도 입건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이용해 음란물과 영화 등 불법 영상물을 대량 유통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김모(40)씨와 대표 이사 이모(40)씨, 운영팀장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모(30)씨 등 업체 직원 6명과 박모(34)씨 등 불법 저작물을 대량 전송해 이윤을 챙긴 헤비 업로더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10월 까지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법 영상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해 불법 음란물·영화·만화·드라마 등을 올리게

했다. 두 사이트의 매출 규모는 연간 25억원에 달했다.

총 12명의 헤비 업로더 중 9명은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이었고 3명은 일반 회원이었다. 업체 측은 고용한 사람 중 2명에게 음란물 게재를 전담시키고 매출의 25%가량을 지급했는데 두 사람이 받은 수익금은 각각 8000만원에 달했다. 업체 측은 최소 4억80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영상물 양을 늘리기 위해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업로더로 고용해 대량 업로더가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을 구매해주고 분야를 나눠 영상을 올리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 간 결탁 여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문영상 전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제청에도 불법 수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상상 초월 수법...을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 28억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광주지역 피해액과 발생 건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1~10월 광주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66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3%, 피해액은 6% 각각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형' 수법이 급증했다. 올해 166건 발생 사건 중 67.5%(112건)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수법은 지난해 대비 29% 감소했으나, 건당 피해액은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특약 앱이나 원격조정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등 범죄 수

법도 진화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피해자에게 신용 카드 허위 결제 문자를 전송한 후 문자 전화한 피해자를 속여,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 카드 생성번호를 알려주게 해 1억488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도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게 해 1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조언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도 은행 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간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버무려요 22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개막한 2018빛고을 김장 대전에 참가한 남구 인애복지관 직원들과 봉사초, 방림초, 유안초 학생, 학부모들이 남구 지역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배추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빛고을 김장대전은 다음달 16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산구 1급고 선정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 광주경찰, 구청·은행 등 대상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 수사

광주 광산구 1급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된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이 구청과 은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과 관련 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6급 공무원 A(50)씨를 공무원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다. 또 대가성과 타 관련자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자료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청과 관련 은행 두 곳뿐만 아니라, 자택 등까지 모두 압수 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1급고 운영기관을 교체했다.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담당 공무원이 양측 은행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고교생 제자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기간제 교사 구속 기소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

하며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잠든 모습도 촬영했으며 지난 7월에는 B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도 했다. A씨는 합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남자친구 이별 통보에...고시텔 불 질러 대피 소동

○술만 마셨다면 불을 지르는 술버릇이 있는 10대 여성이 남자의 이별 통보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가 경찰서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19)양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고시텔(5층·33실) 건물 1층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B군이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자,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A양은 불길을 피해 1층 원룸 방안에 옥실에 있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화재로 입주민 23명이 대피하는 등 자칫 했으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면서 "A양이 술을 마시면 고의로 불을 내는 술버릇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시공전 시공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역청에 '이퍼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퍼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독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